

대표기도

가족대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의 손길을 돌보아 주시며,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주셔서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으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족의 어른들께 은총을 베푸셔서 강건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 걸음의 자취마다 주님의 은혜가 남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시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36:24-26

다 같이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설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수확하고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추석입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새 열매에 대한 감사를 자신들의 조상들께 드렸습니다. 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한 해의 수고에 대해서 결실을 맺게 해주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시인의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24)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들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위협적인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연재해, 사건사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는 갈등, 그로인해 상처받는 일들이 계

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언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거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한 대적이 우리를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25)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은 단지 먹을 양식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탁 위의 밥 한 그릇부터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그 밖의 모든 인간관계와 건강,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며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깊은 관심으로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며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순간 우리를 보호하시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추석되길 바랍니다.

기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추석 가정예배

조금 빠르게

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에
2.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 갈 때
3.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 아 라

너를 흔들어 하게 될 때에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 어 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 리 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 어 라 두렵 없이 항상 찬송하 리 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 리 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가 라

복을 세 어 라 네가 알 리 라

후렴

반 은 복을 세 어 보 아 라 크 신 복을 네가 알 리 라
반 은 복을 세 어 보 아 라 크 신 복을 네가 알 리 라

반 은 복을 세 어 보 아 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 리 라
주께 받은 복을 모두

주기도문

다 합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 예배를 준비하면서

- ❖ 가족 중 한 분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 ❖ 명절 예배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 예배 시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는 일을 삼가 합니다.
- ❖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한 마디씩 나눕니다.

묵상기도

다 같 이

신앙고백

다 같 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다 같 이

조금 빠르게

1.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 려 잘
2.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 름답 구 나 길 가 의 고운 꽃 도 주
3. 씨 뿌려 거둔 곡식 주 님 의 은혜 라 우리 의 몸과 마 음 새

길 러 주셨 네 또 사 시 사 철 따 라 햇 빛 과 단 비 를 저
님 의 숨 쉴 라 저 공 중 나 는 새 도 다 먹 여 주 시 니 그
힘 이 넘 치 네 주 은 혜 받은 우 리 참 감 사 하 면 서 이

후렴

밭에 내려 주니 그 사 랑 한 없 네
사랑하는 자 너 돌 보 지 않 으 라 온갖 귀한 선 물 주
예 들 드리 오 니 다 반 아 주 소 서

님 이 주 신 것 그 풍 성 하 신 은 혜 를 다 감 사 드 리 세 아 멘